

장성 ‘인구감소 해법’ 찾아 군민과 머리 맞대다

토론회 개최...도시민 세컨하우스 등 의견·방안 제시
郡, 이달 말 사업발굴보고회...“지방 소멸 위기를 기회로”

장성군이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민과 머리를 맞댔다. 장성군은 23일 “최근 군청 4층 아카데미홀에서 인구 감소 대응 군민토론회를 열어 해당 분야 전문 지식을 갖췄거나, 풍부한 현장 경험을 지닌 주민들이 군민참여단으로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군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마련된 이번 회의는 ▲주거·정주여건 ▲인재 육성 ▲일자리·경제 ▲문화·관광 4개 분과로 나눠 진행됐다.

주거·정주여건 분과에서는 빈집과 빈상가를 리모델링해 청년층 유입을 유

도하고 도시민 세컨드 하우스를 제공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청년지원제도를 일원화하고 청년 커뮤니티를 강화하는 제안도 나왔다.

인재육성 분과는 출산과 보육을 위한 전반적인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학령기 가족의 지역 만족도가 높긴 하지만 이러한 흐름이 중·고등학교 진학 이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 여건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함께 애니메이션, 미술치료 등 특색 있는 학과 개설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일자리·경제 분과에서는 장성이 광



장성군은 최근 군청 4층 아카데미홀에서 ‘장성군 인구감소 대응 군민참여단 토론회’를 열고 군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장성군 제공>

주의 위성도시라는 점을 적극 활용해 의견을 냈다. 나노산단 등에 청년 유입 여건성 강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을 유도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

며 타 지역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문화·관광 분과에서는 축명산, 백양

사, 황룡강 등 지역 자원을 적극 활용해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체적으로 많았다.

군은 이번 군민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지역현안, 해결과제, 인구유입 방안 등을 적극 반영해 인구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 수립도 연계해 추진하며 이달 말에는 인구 감소 대응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한 사업 발굴 보고회도 갖는다.

김한중 군수는 “주거, 교통, 복지·의료, 문화·관광, 경제, 교육 등 군민 일상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생활 서비스 인프라를 내실 있게 구축해 지방 소멸과 인구 감소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성=김문태기자



담양군 “대나무축제 성공 개최 운힘”

‘2023 New Bamboo Festival’ 최초 보고회

담양군은 “최근 ‘2023 New Bamboo Festival’의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 상황 최초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준비 상황 최초보고회는 이병노 군수 주재로 군청 대회의실에서 정경옥 관광과장을 비롯한 실·과·소장과 읍·면장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서별 추진 상황을 보고하고 미비점 보완을 논의했다.

군은 4년 만에 개최되는 담양 대나무축제가 지역 축제를 넘어 글로벌 축제로 도약하기 위해 ‘2023 New Bamboo Festival’로 축제명을 변경했다.

축제는 ‘가자, 대숲 속으로!’를 주제로 오는 5월3-7일 추성경기장 및 관방제립 일원에서 개최된다. 대나무의 가치를 재조명해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전 공직자들이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군은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주차시설, 각종 편의시설, 안전대책을 철저히 준비해 관광객의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병노 군수는 “더욱 다채롭고 새로워진 프로그램으로 관광객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며 “채류·수익형 축제에 중점을 두고 지역민의 소득과도 연계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기자

로 오는 5월3-7일 추성경기장 및 관방제립 일원에서 개최된다. 대나무의 가치를 재조명해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전 공직자들이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군은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주차시설, 각종 편의시설, 안전대책을 철저히 준비해 관광객의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병노 군수는 “더욱 다채롭고 새로워진 프로그램으로 관광객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며 “채류·수익형 축제에 중점을 두고 지역민의 소득과도 연계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기자

광양제철소-광양시, ‘청년직원 정착성 제고’ 강연

광양제철소는 “최근 광양시와 함께 ‘청년직원의 지역 정착성 제고’를 위한 강연’을 열어 다양한 지원정책을 소개했다”고 23일 밝혔다.

강연은 광양기술교육센터에서 열렸으며 광양제철소 신입사원 44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광양시 정착성을 높이기 위한 청년 대상 주요 시책을 설명하는 시간과 서로 의견과 건의사항을 교류하는 소통형 강연으로 진행됐다.

광양제철소는 광양시와 협업을 통해 지역 청년들의 정착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해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광양제철소는 광양시와 협약을 통해 ‘포스코 취업아카데미’를 운영 중이다. 지역 내 청년들의 직무상식, 인성, 면접 역량, 현장 실무교육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해 취업아카데미를 수료한 청년들이 광양제철소에 취업하는 등 지역 정착성 제고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밖에 미혼직원 대상 생활관 최대 5년 지원, 자체 영유아보육시설 운영, 생활안정자금 및 지역 내 주택구입 자금 대부 등 젊은 직원들의 광양 지역 정착을 위한 자체적인 지원제도도 진행하



고 있다.

지역 정착성 제고를 위한 강연에서는 청년 세대를 위한 광양시의 주거지원 정책을 포함해 출산 및 육아 관련 정책도 소개됐으며 사회초년생부터 결혼과 육아 시기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친 다양한 지원정책을 총망라한 가이드북도 지급됐다. 즉석 퀴즈를 통해 각종 상품권 등 경품도 지급해 참석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광양제철소는 포스코인재창조원 주관 신입사원 교육 프로그램에도 강연 내용을 반영, 각종 지원정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광양시와 지속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해 신입사원들의 지역 정착을 높이는 다양한 방안을 기획·시행할 계획이다. /광양=양홍렬기자

구례군,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지원

내달 5일까지 신청...올 상반기 40개소 우선 선발
시설개선비·기계·장비 구입비 등 전액 군비 지원

구례군이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에 나선다.

23일 구례군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노후 점포 시설 개선비 또는 기계·장비 구입비를 전액 군비로 지원한다.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구례군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대상 사업장은 70개소 내외로 상·하반기 공고를 통해 모집하며, 상반기에는 40개소를 우선 선발할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총 공급가액의 80% 범위 내에서 업체당 최대 300만원까지며, 신청 대상은 공고일 3월21일 기준 구례군 내에서 사업자등록증상 6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국세 및 지방세 납세실적, 사업장 운영 기간 등에 따라 높은 점수를 받은 대상자를 선발하게 된다.

다만, 전년도 매출 증빙 불가 업체, 국제 지방세 체납 사업장, 휴·폐업 중인 업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사업장을 여러 개 운영하는 경우에는 1개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4월5일까지며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구비해 구

례군청 경제활력과로 신청하면 된다.

구례군 누리집 고시공고란 “2023년 구례군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게시글을 통해 세부 사항을 확인하고 제출 서류 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 경제활력과 지역경제팀 (061-780-2622)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고유가·고금리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몸과 마음이 지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지원해 경영난을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임종길기자

“국내 첫 민간발사체 ‘한빛-TLV’ 시험발사 성공 축하”

이노스페이스 개발...고흥군 “핵심 인프라 구축 탄력 기대”

고흥군은 23일 “국내 우주 스타트업 기업인 이노스페이스가 독자 개발한 엔진 검증용 시험 발사체 ‘한빛-TLV’가 성공적으로 발사된 것에 대해 6만2천여 고흥군민과 함께 축하한다”고 밝혔다.

국내 첫 민간 발사체인 ‘한빛-TLV’는 이노스페이스 소형위성발사체 ‘한빛’에 적용될 추력 15kg 하이브리드 로켓 엔진의 비행성능 검증용 시험발사체다.

지난 19일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발사돼 4분33초동안 정상비행 후 브라질 해상의 안전 설정 구역 내에 정상 낙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시험비행에 성공한 우주 스타트업 기업인 이노스페이스는 고체로켓과 액체로켓의 특·장점을 융합한 ‘하이

브리드 로켓’ 엔진 기술을 가진 기업으로 하이브리드 로켓 분야 국내 1위, 세계 3위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공영민 군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값진 성과를 이뤄낸 김수중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들의 노고에 격려와 박수를 보낸다”며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새 시대를 연 이노스페이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앞으로의 행보에도 고흥군이 늘 함께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고흥군 관계자는 “이번 이노스페이스의 발사 성공으로 고흥 나로우주센터 인근에 민간발사장 등 민간 우주개발 핵심 인프라 구축 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앞으로 이노스페이스와 같은 발사체 스타트업 기업들을 지원하고 다양한 민간위성이 고흥에서



발사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12월 ‘우주발사체 특화지구’ 지정에 이어 이달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우주개발 필수 인프라 구축 및 발사체 관련 기업들의 집적화를 통해 우주발사체 산업의 성장 거점으로 우뚝 선다는 계획이다. /고흥=최봉환기자

여수, 통합의료서비스 확대 올해 10회 1천명까지 추진

여수시가 의료 취약지역인 섬 주민을 위한 ‘통합 의료서비스’를 올해 1천여명까지 확대 운영한다.

23일 여수시에 따르면 ‘통합 의료서비스’는 섬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보건소와 민간 의료기관 및 봉사단체가 협력해 지원하는 서비스다.

지난해 7회에 걸쳐 섬 주민 404명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를 올해는 10회에 1천명을 대상으로 확대 추진한다.

올해 ‘의료통합 서비스’에는 ▲의료기관 여수백병원, 여수해양병원, 여수평안마취통증의학과의원 ▲봉사단체 이·미융합회, 일공공일안경원이 참여한다.

23일 첫 시작으로 남면 안도리 지역 주민 150명에게 신경외과 무료수술, 만성질환 관리 교육, 상비약품 및 돌보미 제공, 이·미융합서비스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여수=김진선기자

‘제25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 개최

내달 29일-5월1일...세계차엑스포 기간 불거리 선사

판소리의 고장 보성에서 판소리 명창을 가린다.

보성군은 23일 “오는 4월29일부터 5월1일까지 보성군문화예술회관에서 3일간 ‘제25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제11회 보성세계차엑스포 기간 중 열려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판소리·고수 경연대회 예선은 4월29일 시작된다. 경연대회는 판소리와 고수 분야로 나눠 진행되며 명창·명고부와 대학·일반부, 신인부, 장년부, 학생부, 학생부 종합 등으로 열린다.

이어 4월30일에는 역대 대통령 수상자 축하공연, 전국 판소리·고수 경연대회 본선, 명인·명창 고수열전, 보성군립국악단 특별 공연과 시상식이 진행된다.

‘판소리 성지’ 보성에서 보성소리의 명맥을 이으며 후학을 양성했던 명창들을 기리는 추모제 및 추모 공연은 5월1일 개최된다.

부대 행사는 전통 악기 만들기, 전통 놀이 체험, 보성 주막집 판매 행사가 준비돼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이들은 다음달 29일 오후 6시까지 참가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서편제보성소리축제 추진위원회로 접수하면 된다.

보성군은 서편제의 비조 박유전 선생과 보성소리를 정립한 정응민 선생, 정권진·박춘성·성우향·조상현·성창순 등 많은 명창을 배출한 판소리 명창의 산실로 대한민국 국악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 1988년부터 매년 서편제보성소리



제24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 기념공연 모습.

축제를 개최해 전국경연대회를 통한 인재 발굴과 판소리 명맥을 잇는 데 힘쓰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성문화원 (061-850-5892 / 852-2621)에 문의하거나 서편제보성소리축제 홈페이지 (<http://www.boseong.go.kr/tour/festival/sopyonje>)를 참고하면 된다. /보성=임병연기자